



보도 일시	2022. 12. 9.(금) 08:30	배포 일시	2022. 12. 9.(금) 08:30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규삼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jmlee88@korea.kr)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9(금) 08:00 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기재부, 제목만 공개)
- ②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 및 계란 수급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공개)
- ③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기재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월 경상수지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 무역수지 적자(△67억불)가 전월(△38억불)보다 확대되면서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고,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 들어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개 등에서는
 실내 평균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강령을 이행¹⁾중이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²⁾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❶난방온도 제한(18→17°C), ❷전력피크 시간대(9:00~10:00, 16:00~17:00) 난방기 순차운휴,
 ❸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❹경관조명 소등, ❺업무시간 1/3 이상 실내조명 소등 등

2) 100개 기관 현장 불시점검(규모, 위치 등으로 선별) + 여타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 제출 및 확인
 → 시정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1차 점검: 11.21~12.1 / 2차 점검: 12.5~23)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서도 한강 33개 교량(23시→22시),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24시→22시30분) 등의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동향 및 계란수급 대응방안'입니다.

금년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10.17일)되었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21년³⁾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⁴⁾하여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⁵⁾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 결정, 방역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4) 12월 산란계 7,552만마리(전년비 +4.0% 평년비 +3.9%) → 계란 생산량 일일 4,530만개(전년비 +2.3% 평년비 +1.0%)

5) 금년 산란계 AI는 9건 발생, 살처분 물량은 116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1.5% 수준
↳ 산란계 살처분 물량: ('20/21년) 1,674만 마리, ('21/22년) 424만 마리

이에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11.23~12.20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매주)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11월~)이며, 수급 불안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⁶⁾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입니다.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작년 8월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⁷⁾)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국제표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환경·사회·투명 경영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 발표된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프라 고도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

6) 부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

7)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